

‘3연속 루징 시리즈’ KIA, 이번 주가 고비다

14~16일 두산전·17~19일 NC전

지난주 2승3패... 상위권 추격 허용
이의리·크로우 빈자리 최대 과제
최형우 2주 연속 4할 타율 ‘활약’



지난주 가을야구권 (5위 이내) 탐인 삼성 라이온즈와 SSG랜더스를 상대로 2승 3패에

그치며 3연속 루징 시리즈를 떠안은 KIA 타이거즈가 고비를 맞았다. 체력적 부담에 부상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가을야구권에 진입한 두산베어스와 NC다이노스를 연달아 만난다. KIA는 지난주 삼성과 첫 경기가 우천 취소된 뒤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후 SSG를 상대로 1승 2패에 그치며 올 시즌 25승 15패(승률 0.625)를 기록했다. 7할 승률에 이어 6할 승률도 위기를 맞았고, 공동 2위 NC와 삼성(2경기 차)부터 6위 SSG(3.5경기 차)까지 거센 추격을 맞이했다. 우천 취소로 1승 1패를 나눠가진 시리즈를 제외하고 최근 3연속 루징 시리즈에 빠지며 KIA는 체력 부담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2일 SSG와 더블헤더 2차전에서 집중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중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40	25	15	0	0.625	-
2	NC	40	23	17	0	0.575	2
	삼성	41	23	17	1	0.575	2
4	LG	43	23	18	2	0.561	2.5
5	두산	43	24	19	0	0.558	2.5
6	SSG	42	22	19	1	0.537	3.5
7	KT	42	17	24	1	0.415	8.5
8	한화	40	16	24	0	0.400	9
	키움	40	16	24	0	0.400	9
10	롯데	39	13	25	1	0.342	11



KIA타이거즈가 14일부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 주중 3연전, 17일부터 NC다이노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 최형우가 지난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맞대결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역전패했다. 투수진도 위기를 맞았다. 이의리가 좌측 주관절 굴곡근 염좌로 이탈해있는 상황에서 윌 크로우가 우측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졌다. 이번 주에도 6선발과 7선발이 나란히 출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혹의 해결사 최형우의 활약만이 위안거리다. 최형우는 주간 타율 0.444(18타수 8안타)를 기록하며 2주 연속으로 4할이 넘는 맹타를 휘둘렀고 출루율이 0.524, 장타율이 0.778로 OPS(출루율+장타율)가 1.302에 육박했다. ●두산, 8연승 최상의 흐름 두산은 지난주 키움과 KT를 상대로 연속 싹쓸이 승리를 챙겼다. 6위에서 5위로

올라서 순위 변동은 크게 없어 보이지만 최근 8연승을 질주하며 KIA와 승차를 2.5경기까지 바짝 따라잡았다. KIA는 두산을 상대로 양현종-네일-윤영철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 양현종은 지난주 2회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7일 삼성전이 우천 취소되면서 이번 주 2회 등판을 소화하게 됐다. 두산은 브랜드와 최원준이 나서고 마지

막 경기에 대체 선발을 투입할 전망이다. 당초 김유성이 대체 선발로 낙점됐으나 지난 10일 KT전에서 1.1이닝 2실점에 그치는 등 제구 난조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 새 얼굴을 찾아야 한다. 두산은 최근 투타에서 최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과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가 각각 2.67, 1.19로 가장 낮았고 팀 타율과 OPS는 0.386, 1.055로 가장 높았다. 특

히 팀 타율이 3할, OPS가 1점대를 기록한 것은 두산이 유일했다. ●NC, 가장 저조한 분위기 NC는 지난주 1승 4패로 올 시즌 들어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KT에 2패(1경기 우천 취소)로 루징 시리즈를 안은 뒤 삼성에게도 1승 2패로 연속 루징 시리즈에 그쳤다. 단독 2위였으나 삼성에 공동 2위를 허용했고, KIA와 승차가 다시 2경기로 벌어졌다. KIA는 NC를 상대로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체 선발이 연속 투입된다. 황동하가 먼저 나설 가능성이 높고 토요일 경기는 미지수다. 김사윤과 김건국이 유력한 후보이나 이형범이 말소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경기에는 양현종이 나선다. 반면 NC는 김시훈과 이재학, 카스타노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차례다. NC의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없는 만큼 KIA는 공격에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다. NC의 공격력도 만만치는 않다. 박건우가 주간 타율 0.444(18타수 8안타)로 맹타를 휘둘렀고 김주원(주간 타율 0.375)과 서호철(주간 타율 0.368)도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체조 김민형, 소년체전 사전경기서 전남 첫 금

전남체육중 김민형(3년)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 첫 금메달을 전남도 선수단에 선사했다. 김민형은 지난 12일 영암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전경기 종목인 기계체조 남중부(남자 15세 이하부) 철봉 종목 결승에서 12.560점을 획득,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민형은 철봉 종목 예선에서 11.200점을 받아 4위로 결승에 진출한 뒤, 결승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결승선수 8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첫 시작인 체조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형 선수의 기운을 받아 남은 경기에서도 전남선수단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5~2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50여개 경기장에서 1만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17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오늘부터 전남 일원서

광주 106명·전남 295명 출전

광주와 전남지역 장애학생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낸다. 장애인체육 미래의 주역들이 꿈을 펼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14~17일 나흘간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및 지도자, 임원 등 3500여 명이 17개 종목(정식 16·전시 1개)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광주 선수단은 총 106명(선수 61·임원 45명)이 출전해 육상 등 9개 종목에서 메달 49개(금 9·은 20·동 20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탐과 열정을 쏟아 갈고 닦은 기량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유감

없이 펼칠길 바란다”며 “광주시 대표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선수단은 11개 종목에 295명(선수 154·임원 및 지도자 141명)을 파견한다. 그동안 전남선수단은 9개 특수학교, 40개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학교생활 틈틈이 실력을 키워 온 장애학생 154명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17회 대회에서 57개(금 13·은 21·동 23개)의 메달을 획득한 전남은 올해 57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다.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장애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다”며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발판이 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울산 잡고 파이널A 도약할까

내일 8라운드 순연 경기 승리 시 6위까지 대약진



‘달빛더비’에서 연승이 중단된 광주FC가 울산 HD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파이널A(6위 이상) 진입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8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른다. 지난 11일 대구 원정을 다녀온 뒤 4일 간격으로 타이틀을 노리는 이정호호다.

올 시즌 4승 7패(승점 12)로 9위에 위치한 광주는 순연 경기 승리로 파이널A 진입을 노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이번 라운드를 승리할 경우 6위까지 뛰어오른다.

광주는 연승이 중단됐지만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올 시즌 11경기에서 19득점을 생산하며 울산(11경기 24득점)과 강원(12경기 22득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생산하고 있다.

탄탄한 중원이 경기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정호연과 이강현, 박태준, 문민서 등 활동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공수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지난 경기 처음 엔트리에 포함된 여봉훈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현대가 길러’ 이견희도 든든하다. 이견희는 지난 시즌 26경기에서 5득점을 기록했는데 이 중 세 골이 전북과 울산을 상대로 나왔다. 특히 이견희가 현대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울산은 올 시즌 7승 3무 1패(승점



광주FC가 15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HD FC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8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11일 대구 DGB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역전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4)로 2위에 올라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이번 라운드를 승리할 경우 포항(승점 25)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서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울산은 올해 에이스 역할을 한 이동경이 상무에 입대했고, 설영우가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전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하지만 모기업인 HD현대의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총출발 선수층을 구축했다. 주민규와 엄원상, 이창용 등 국가대표급 공격 자원들이 화력을 자랑하고 아타루와 보야니치, 루빅손, 마테우스, 마틴 아담, 켈빈으로 이어지는 외인 라인업도 화려하다. 이규성과 이명재, 김영권, 임종

은, 황석호 등이 버티는 수비 역시 탄탄하다. 광주는 울산의 화력을 봉쇄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19실점을 기록하며 강원(12경기 23실점)과 전북(12경기 22실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내주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고 울산의 허점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는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지만 울산의 경우 지난 12일 김천과 맞대결 후 3일 간격으로 다시 경기에 나서 체력적 부담이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